

일본의 면역세포요법 한국 상륙!

일본 미디어넷, 한국의 IMS와 제휴 ... 2004년 2월 한국시장 진출

면역세포가공 지원서비스를 실시하는 일본의 미디어넷이 2004년 2월부터 해외전략을 실시하기로 하고 첫째 시도로 한국의 벤처기업과 손을 잡고 한국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일본의 미디어넷은 한국의 바이오 벤처기업인 이노메디시스(IMS)와 제휴해 한국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으며, IMS의 체제정비가 완료되는대로 실행에 옮길 방침이다.

한국 파트너와의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축으로 일본에서 추진중인 종합지원 서비스와 같은 고품질 업무를 전개함으로써 큰 폭의 수익향상을 꾀하고 있다.

미디어넷의 면역세포요법 종합지원 서비스는 환자로부터 채취한 임파구를 체외에서 배양해 활성화·증식시킨 후 다시 환자의 체내에 집어넣어 치료하기 위한 기술을 비롯해 기기설비, 맞춤의료와 관련된 관리 노하우를 패키지화해 의료기관에 제공한다.

일본에서는 Seta Clinic과의 협력관계를 비롯해 Yokohama, Osaka, Hukuoka의 주요 거점 의료기관 4곳에 CPU(세포가공센터)를 병설해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전략으로는 2003년 11월말 IMS와 면역세포요법 종합지원 서비스의 기술원조, 공동연구 및 출자에 관한 계약을 맺음으로써 한국지역의 서비스 사업화에 있어 독점적인 실시권을 얻어 로열티를 받기로 했다.

서비스에 관한 노하우나 지적재산권 등을 패키지화한 실시권으로 일본에 이어 면역세포관련 기술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장래 면역요법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한국에서 재빨리 사업진출 기회를 획득하기 위한 것이다. 출자는 3억원으로 IMS의 보통주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지분비율은 20%이다.

제휴기업인 IMS는 서울 시내에 신설되는 의료기관 이노메디클리닉의 2월 개설에 맞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노메디클리닉은 면역세포요법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으로 개설되며 미디어넷의 포괄적 지원을 받는 IMS가 CPU시설을 만들어 대여하고 기술 노하우, 소모품 등을 제공하며 의료활동을 지원한다.

서울의 CPC는 당초 세포가공용량이 Osaka, Hukuoka에 가까운 월 약 400의 배양규모로 발족됐다.

미디어넷은 한국사업이 시작됨에 따라 영업실적을 상향조정해 2004년 9월 결산기의 당기순이익을 30% 증가한 11억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Chemical Journal 2004/02/10>